

오늘의 주요기사

2023 5 15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강원도민일보	11					1
江原日報	21					1
강원신문 <small>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small>						2
江原日報	16					3
강원도민일보	02	9				3
강원도민일보			가	28		4
亞洲經濟			가	28		5
강원신문 <small>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small>						6
강원도민일보	21	[]				7
강원도민일보	16					8
江原日報		[]		가		8
江原日報		[]				9
江原日報	21					9
강원도민일보	27			가		10
江原日報	15					10
江原日報	13					11
江原日報		[]				11
		[]				12
江原日報		[]				13
江原日報	21	[]		()		13
강원도민일보	02			25		14
강원도민일보	03			' 30		15
강원도민일보	03					15
강원도민일보	03					16
강원도민일보	15	"		"		16
江原日報	01	'GTX-B		...		17
강원도민일보	02	" 50		365	가	17

강원도민일보	21	[]		18
강원도민일보	21	[]'	' 가	19
江原日報	19	[] ‘	19 ’,	가 20
江原日報	19	[]	22 15 ,	... 21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11



강릉원주대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한마음 대축제 강릉원주대 경영·정책 과학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문회 30주년 기념 한마음 대축제가 지난 13일 강릉원주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종욱 강릉시 부시장, 김정래 경정대학원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5 15 ()
21



대한전문건설협 도회 체육대회 제23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원사 대표자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유상범 국회의원, 권혁열 강원도의회장, 심재국 평창군수, 박기동 강원도 건설교통국장 등 내빈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윤학수 중앙회장, 박용석 강원도회장을 비롯한 18개 시·군 대표 및 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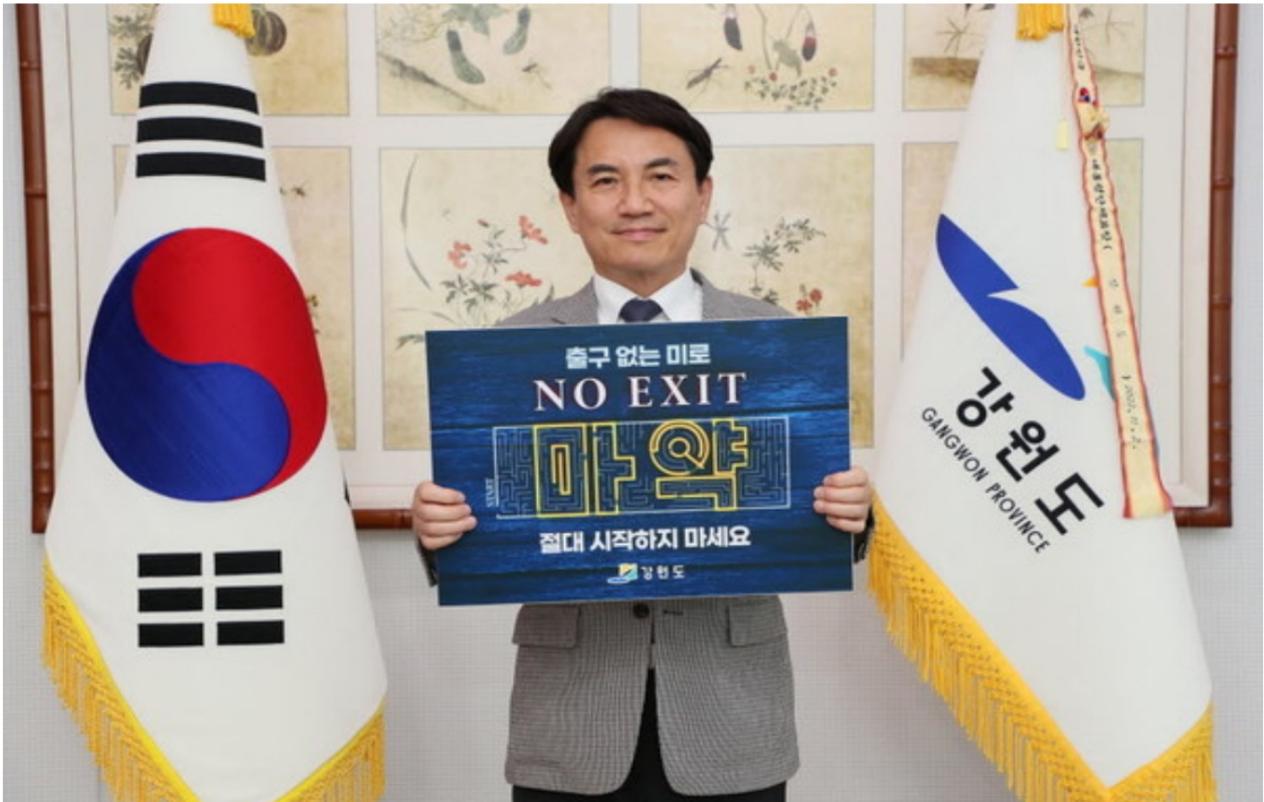
2023 05 12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정부 마약과의 전쟁'.. 김진태 도지사, 마약예 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황만호 기자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 도민 모두의 의지 확산
다음주자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지목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강원도는 마약 중독의 위험성 환기 및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고자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도민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마약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추진한다.

캠페인은 캠페인 이미지와 함께 인증샷 촬영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릴레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하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다음주자로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을 지목하였다.

강원도는 "이번 릴레이는 모든 국민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마약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황만호 기자 gwnews@daum.net

江原日報

2023 05 15 ()
16



양구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제5회 양구군 야구소프트볼협회장기 야구대회 개회식이 지난 13일 하리야구장에서 서흥원 군수,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과 선수, 임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02

내일부터 9일간 도의회 임시회

강원도의회가 강원도청 2청사 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심의 일정에 돌입한다. 지난달 4월 회기 당시 심의 순서로 논란을 빚었던 강원도청 강릉2청사 조직개편안 심의가 17일 진행된다. 또,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심의된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5 14 ()

도의회,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

이설화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정선군 사북읍 범바위3교~주유소 앞) 관련 간담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강원도의회 제공]



▲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정선군 사북읍 범바위3교~주유소 앞) 관련 간담회가 지난 12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철 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2023 05 12 ()

亞洲經濟

강원도의회,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 개최



강원도의회는 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가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영기 강원도 도로시설팀장, 송수옥 정선군의회의원, 전광표 정선군의회의원, 유종덕 정선군 사북읍장, 송진욱 정선군 사북읍 번영회장, 송계호 정선군 사북신협이사장, 채점태 정선군 사북11리 이장, 장정암 사북11리 노인회장 등 정선군 사북읍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겪고 느끼고 있는 여러 고충사항을 설계에 담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춘천)강대웅 기자 dwkang@ajunews.com

2023 05 12 ()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 개최

황만호 기자



12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가 열렸다.

12일,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주재로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 이영기 강원도 도로시설팀장, 송수옥 정선군의회의원, 전광표 정선군의회의원, 유종덕 정선군 사북읍장, 송진욱 정선군 사북읍 번영회장, 송계호 정선군 사북신협이사장, 채점태 정선군 사북11리 이장, 장정암 사북11리 노인회장 등 정선군 사북읍 발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에 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기철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장은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사북지구 도로재구조화사업 실시설계가 완료될 때까지 지역주민이 직접 겪고 느끼고 있는 여러 고충사항을 설계에 담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황만호 기자 gwnews@daum.net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21

집사광익(集思廣益)으로 속초미래의 청사진을 그리자

의정칼럼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인 우리 속초시는 공식적인 주민등록상 인구와 달리 유동인구는 계속해서 크게 늘고 있다. 2017년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완전 개통과 2027년 완공예정인 동서고속철도 개통으로 이런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접근성 향상으로 속초의 관광 여건은 여러모로 개선되고 있고, 대형 건축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나, 정작 주인인 속초시민의 삶의 질은 개선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2027년도에는 현 속초시 교동 776번지 일원에 있는 속초중학교가 조양동으로 이전될 예정이라고 한다. 속초중 38회 동문으로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지만, 남부권에 중학교가 없어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 때 대승적 차원에서 환영을 한다. 이전 후에, 현 속초중학교 부지는 속초시에서 매입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속초중학교 이전과 동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 조성을 논의해야 될 단계에 와 있다.

현재 속초중학교 바로 옆에는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이 있다. 주변 교동초등학교와 속초중학교, 교육지원청이 같은 위치에 있다 보니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고 우려 등 비효율적 측면이 많은 곳이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지역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구성원을 위한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1994년 12월에 건립됐다. 청사는 지은 지 30년이다 되었고, 속초시와 양양군 두 개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이다 보니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지역내에 지속적인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속초중학교 이전에 맞추어 속초시와 양양군 주민 모두가 교육행정 서비스의 접근이 용이한 곳으로 교육지원청 이전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속초중학교 인근 부지는 속초 IC에서 나와 속초시 관문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속초시에서는 부지를 매입하여 3만 6191㎡에 상당하는 공간을 시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에 있다고 한다. 만약 1만 1874㎡ 규모의 교육지원청도 이전하게 된다면, 4만 8065㎡에 달하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을 폭넓게 구축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로의 활용 가치가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있으며, 개발을 통한 유상임대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과 관광 수요와 주거지역 내 시민 수요를 접목한 다양한 방식의 시민을 위한 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유지 활용방안 모델은 여러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시민을 위한 문화 인프라 개선사업, 유통·여가·의료 시설 등 배치, 동해안의 관문을 상징하는 복합테마공간 조성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로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속초의 미래를 그려가는 밝은 청사진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행정은 더 나은 공익목적 실현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속초시 행정당국과 교육당국이 진정 속초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백년대계(百年大計)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더 큰 이익을 얻는다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의미를 새기며, 다수가 편익을 누리고, 지역구성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16



화천군수기 테니스대회 '제25회 화천군수기 테니스대회'가 지난 13일 하남면 거례리 레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최문순 군수, 송호관 군체육회장, 박대현 도의원과 노이업 군의장, 동호인 3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5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 원천초교 동문가족 대잔치



2023 원천초교 동문가족 대잔치가 13일 하남면 원천리 인조잔디 구장에서 최문순 군수, 박대현 도의원, 주종성 화천중·고총동문회장을 비롯한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5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군협회장기 축구대회



제25회 화천군협회장기 축구대회 개회식이 13일 하남면 위라리 생활체육공원에서 최명수 부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송호관 군체육회장, 김명규 화천농협조합장, 이봉은 화천MG새마을금고이사장, 동호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5 15 ()

江原日報

21



강원사대부교 총동문 한마당 큰잔치 강원사대부교 총동문회(회장: 배현철)는 지난 13일 학교 운동장에서 배현철 총동문회장과 한기호·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이무철·박찬홍·이승진 도의원, 김정근 강원사대부교 교장, 동문 및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57주년을 기념하고 화합을 위한 ‘2023 총동문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27

강릉 출신 박용재 시인, 산불피해 자폐화가에 시콘서트 수익금 기부

10번째 시집 '신의 정원에서' 출간
데뷔 40주년 맞아 행사 의미 더해
권성동 의원·배우 김상중 등 참석



부인 김진희 씨, 김홍규 시
장과 부인 김은희 씨, 심오
섭 도의원, 청우스님, 함종
빈 전 교육장, 김수복 단국
대총장, 강희문 강릉관광

로 화실과 자택을 잃은 자폐화가 가장
우씨에게 기부했다.

박용재 시인은 "강릉을 그리며 쓴 '강
릉'과 강릉에 머물며 쓴 '꽃잎강릉'에
이어 강릉을 '신의 정원'으로 인식하고
쓴 세번째 시리즈라 의미있다"며 "좋은
날 좋은 분들과 함께 시집 출간을 기념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게 잊혀질 일이나/나 죽는다 해도/
그게 어디/그리 쉽게/잊혀질 일이나/
강릉에서/널 사랑한 일/그 일말이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전국 유명 문
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강릉 사천면 하평리 출신인 박
시인은 1984년 '심상' 신인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했으며 '조그만 꿈꾸기',
'따뜻한 길 위의 편지', '애일당 편지' 등
다수의 시집을 펴냈다.

-시 '강릉에서' 전문
강릉 출신 박용재(사진) 시인의 열번
째 시집 '신의 정원에서' 출간 기념 '시
(詩) 콘서트'가 최근 강릉선교장 야외
극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콘서트는 박용재 시인의 데뷔
40주년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홍규 강릉
시장, 배우 김상중 씨, 문인 등이 시를
낭송해 콘서트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박 시인은 이날 현장에서 판매
한 시집 수익금을 최근 강릉 대형 산불

이연제 dusdn2566@kado.net

이날 콘서트에는 권성동 국회의원과

江原日報

2023 05 15 ()
15



장평초교 총동문 화합 한마당 행사 평창 장평초동문회(회장: 김
금자)는 지난 13일 장평 용평 돔 경기장에서 심재국 평창군수, 심현정 평창
군의회장, 최종수 도의원, 동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평초교 총동
문 화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江原日報

2023 05 15 ()
13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 대회 성료 제25회 고성문화원장기 게이트볼 대회가 지난 13일 간성게이트볼장에서 이양수 국회의원,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주기창 문화원장, 5개 읍·면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5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전기공사협 도회 회원단합체육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회장:최세헌)는 지난 12일 원주 칠봉체육공원에서 '2023년도 회원단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섭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전호철 한국전기신문사 사장, 최재민 도의원을 비롯 내빈 및 회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2023 05 12 ()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소도 숲대 약초원 조성위해 작약 1만본 식재

염윤선 기자

태백시 문곡소도동에서는 지난 10일 민관이 함께 모여 태백산 유일사 2(버스)주차장 일원에 태백산 소도 숲대 약초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작약 10,000본을 식재했다.



▲ 태백시 문곡소도동, 태백산 소도에 숲대 약초원 조성을 위해 작약 1만본 식재작업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제공=태백시) © 염윤선 기자

태백산 소도 숲대 약초원 조성 사업은 건강과 힐링 체험이 어우러진 생태관광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이번 작약 식재 활동은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문관현 도의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장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정성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동네를 태백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드는 뜻깊은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박현모 문곡소도동장은 “봉사에 함께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작약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문곡소도동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염윤선 기자

2023 05 14 ()

江原日報

[포토뉴스] 화천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



제3회 화천군 파크골프협회장기 파크골프대회가 지난 13일 하남면 용암리 파크골프장에서 최문순 군수, 한기호 국회의원,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신준현 군파크골프협회장을 비롯해 지역 기관사회단체장, 동호회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5 15 ()

21

◇원제용강원도의원(원주)



은 15일 오후 3
시30분 원주 백
운아트홀에서
열리는 시어린
이집연합회 주

관 '스승의날 기념식'에 참석.



강원도 초광역권 발전계획안 보고회가 지난 12일 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 초광역권 협력사업 25조원 투자

5년 간 미래산업 육성 51개 사업
경기 등 9개 광역단체 공동 추진

강원도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초광역권 발전 51개 사업에 25조원을 투자한다. 강원도는 지난 12일 도청 신관소 회의실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권 발전 계획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초광역권 발전 계획안의 주요 사업으로 △그린수소에너지 경제권 실현 △천연바이오 협력 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권 관광 인프라 구축 △동해안권 체류형 신관광허브 구축사업 등이 담겼다. 해당 사업들은 경기·충북·경북 등 9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

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국비 23조 5000억원 (94%), 지방비 9136억원 (3.7%), 민자 6255억원 (2.5%)을 확보해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중앙 부처 및 관련 시도와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초광역 협력 사업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최종 계획 반영 및 국비 확보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덕형

2023 05 15 ()
03

강원도민일보

강특법 정부 협상 ‘운명의 일주일’ 30일 본회의 총력전

일정 순탄해 내주부터 심의 돌입
정부, 일부 ‘시한제·조건부’ 무계
도·정치권 특례 최대 반영 진담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국회 본회의 개최가 오는 30일 예정돼 최종안 도출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각 특례안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 시한은 사실상 이번 한주가 마지막이다. 도정치권과 도는 강원특별법 전부개

정안 심의 일정(본지 5월 12일자 1·3면 등)과 관련,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5일 행정안전위원회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를 예상하고 있다.

이 일정대로 순탄하게 절차를 밟는다면, 정부 협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행안위, 법사위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특례의 ‘질과 양’이다.

강특법 전부개정안 핵심은 산림·환경·군사·농업 핵심규제 해소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클러스터 등 신산업·과학기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과 해양심층수 개발을 위한 경제·해양수산 부분, 외국인 무사증제 도입과 카지노 매출액 총량해제 등을 위한 관광 부문 역시 개정안에 담겨 있다.

자치분권 및 교육자치 부문에 있어선 행정기구 설치 운영 및 정원기준

한이양을 위한 조직특례를 비롯해 재정준칙 운영, 국제학교 설립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있다.

이를 놓고 도와 도정치권은 정부 각 부처와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권한이양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특례 항목에 대해선 시한제 또는 조건부 권한이양으로 수위를 낮추는 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6월 11일)은 D-30(5월 11일)을 기점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관철을 위한 범도민적 열기가 도내 여론결집의 장(場)으로 마련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를 통해 재결집되면서 5월 입법의 시간이 본격화됐다.

도관계자는 “23개 조문에 불과한 특별법이 137개 조문을 담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핵심 특례가 최대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지은·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03

규제에 막힌 지역개발 ‘개정안 원안 통과’ 한 목소리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선언대회

강원도와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법국민추진협의회가 지난 11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개최한 ‘지방시대 힘찬 개막-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에 참석한 부단체장들과 시·군의회의장들도 거미줄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5월 입법 관철에 힘을 실었다.

강특법 이것만은 ① 부시장·부군수

지역소멸·인구감소 위기 해소 절실
특자도 성공출범 계기 발돋움 강조

김태훈 원주부시장은 “원주시는 물론 환경 규제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인데, 특별자치도 성공출

범을 계기로 반도체 기업 육성 등 첨단산업을 유치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원주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규하 동해부시장은 “동해시는 동해항의 국가 관리항화·자유무역지역 지정·관리권 이양 특례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례를 통해 동해시가 특별자치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비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최중훈 삼척부시장은 “과거 대한민

국이 아무런 에너지원이 없던 시절 강원도는 산업 전선에 전력과 석탄을 공급하며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히 배려해달라는 게 아니라 살 수만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책무이다”고 말했다.

안중기 횡성부군수는 “횡성군의 경우 농지 60%가 절대농지로 묶여 있어 애로사항이 많은데, 절대농지 특례 규정이 담긴 강원특별법이 원안대로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영권 평창부군수는 “평창군은 83%가 산림인데, 산림수도를 선포하고 산악관광 등을 통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출범을 위해 평창군이 앞장서겠다”고 했다.

원흥식 정선부군수는 “강원도의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는 강원특별자

치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선군은 가리왕산의 올림픽국가정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박경우 철원부군수는 “철원군은 도내 전체 농지의 33%를 차지하지만,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지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등 개발 제한을 받고 있어 강원특별법을 통해 규제가 꼭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최명수 화천부군수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에는 점적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군납부가 수의계약, 군 유류부지 활용방안 등 특례가 반영된 만큼 반드시 원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용 고성부군수는 “고성군은 2008년 금강산 육로 관광 중단 이후 약 5000억원 이상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고성군의 위기 극복 방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달려 있다”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03

강특별 이것만은 ㉔ 시·군의회 의장

여야없이 모든 역량 모아 관철 강조
각종 규제 걷어내 지역 문제 해결을

김진호 춘천시의회 의장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원안 통과가 중요하다. 춘천 시민과 강원도민분들의 행복을 위해 여야없이 '강원도당'으로서 모든 역량을 모아 개정안의 조항을 관철시키자"고 했다. 이재용 원주시의회 의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이 한마음이 된 것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 36만 원주시민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정순 삼척시의회 의장은 "삼척시 도계지역은 경기침체가 심각하다. 특



지난 11일 한림대학교 일송아트홀에서 열린 '지방시대 힘찬 개막 -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출범 자치분권·균형발전 강원인 선언대회'에 참석한 시군의장들이 강특별 이것만은을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호

례안에 내국인 면세점 특례 조항이 담겼다.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온전한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했다.

박영록 홍천군의회 의장은 "서울 시민들 깨끗한 물 먹고 공기 보내줬지

만, 홍천군은 그리고 강원도는 거미줄 규제에 얽매어 개발이 불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은 "여야 정치권이 합심해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 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영월군민과 함께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횡성군의회 의장은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송전탑, 비행소음 등 각종 규제와 피해가 심각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통해 주민들이 편안안 환경속에 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심현정 평창군의회 의장은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한다. 특별한 강원도가 되기 위해선 우리 모두 특별하게 노력해야 한다. 문화와 경제, 관광이 살아있는 강원도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영기 정선군의회 의장은 "폐광지역은 폐특법을 통해 혜택을 받아도 많은 규제와 제약을 겪고 있다. 카지노 사업의 국가 권한과 사무를 강원도지사

에 이양하는 등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준 철원군의회 의장은 "강원도의 변방인 철원은 70년 넘게 각종 규제를 겪어왔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강원도에서 사랑받는 철원군이 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덕형 ▶부단체장·시군의회 의장 발언 전문·영상 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15

"특별자치도 규제 완화 시 '산악 관광' 적극 추진"

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셀 위 투게더

G1방송과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주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셀 위 투게더'의 네번째 순서, 평창군 편은 지난 11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토론회 주요 내용을 실는다.

평창군

올림픽 시설 활용 동계스포츠 거점 도시 도약

◇ 사회자 △김태준 아나운서
◇ 토론 △심재국 평창군수 △이원학 강원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취임 1년을 맞는다. 공약 등 이행 어떤가.

△심="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베뉴 도시 군수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평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림픽 성공 개최에 집중했다. 또, 평창군 191개리를 다니며 모든 주민들을 만났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비료, 농약값이 너무 올라 농사짓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취임 이후 농자재 반값지원을



추진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7월 1일부터 예산 100억원을 들여 지역 화폐 발행 계획을 세웠고 보육교사와 숲 해설가 처우 개선, 복지카드 지원 등 군민 모두가 마음 놓고 잘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악관광산업 추진 방안은.

농자재 반값지원 공약 이행 중점 규제해소 통해 다양한 사업 유치 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총력 훈련센터 운영 과학센터 건립 운영

△심="2009년 산림수도를 선포한 평창군은 전체 면적 84%가 산림인 만큼 다양한 산악관광 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옥산 은하수 관광 허브 구축에 165억원을 투자하고, 야생와 테마정원과 스마트전문대, 장마산하늘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돼서 규제가 풀린다면, 산악관광 이외에도 여러 사업을 통해 평창 군민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평창, 세계적 휴양지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동계스포츠 메카 산업전략은.
△심="올림픽 이후 여러 유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84억원을 들여 평화테마파크를 올해부터 조성하는데, 평창



G1방송과 강원도민일보 등이 공동주최한 '2023 강원특별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셀 위 투게더' 평창군 편이 11일 G1방송 스튜디오에서 심재국 평창군수가 출연한 가운데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서영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올림픽 유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평창 동계훈련센터를 운영하려 한다. 이를 통해 설상 4개 종목, 최대 200명의 선수수가 평창군을 찾아 오는 등 올림픽 동계스포츠의 고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또, 동계스포츠 과학센터 조성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올림픽 시설 부지 활용 방안은.
△이="평창동계올림픽 개최 5년 정도 가지났지만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테마파크라든지 동계올림픽 훈련센터, 과학센터 등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테마파크의 경우 지역 관광 시설 인프라로서 기존에 있던 다양한 시설과 연계된다면 평창의 관광 자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동계스포츠인을 훈련하고 육성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평창 훈련센터 통해 동계스포츠의 인재들이 양성되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는 거점 시설 역할을 할 것이다. 또 이런 시설에서 다양한 국제 행사들이 열린다면 외국인과 많은 사람들이 평창군을 찾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리/김덕형

2023 05 15 ()
01

江原日報

‘GTX-B 춘천 연장사업’ 파란불 ... 역대 최고 경제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속보=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사업의 비용대비편익(B/C)이 1.12~1.27로 측정됐다.

강원지역 SOC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의 경제성(본보 2월27일자 2면 보도)으로, 올 7월로 예상되는 정부의 ‘GTX 연장계획, 신규 노선 확충 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강원도와 춘천시 등에 따르면 GTX-B 춘천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대안1의 경우 B/C가 1.12, 대안2는 1.27로 각각 측정됐다. 통상 B/C가 0.5를 넘을 경우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1.0을 초과하면 경제성까지 높다는

사전타당성 용역 비용대비편익 ‘1.12~1.27’ 내달 연장여부 발표

의미다. GTX-B 춘천 연장의 당위성과 경제성 등을 입증한 것이다.

대안1은 인천대-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마석-가평-춘천을 일일 92회 운행하는 시나리오다. 대안2는 인천대-용산-서울역-청량리-상봉-마석 구간은 일일 92회, 마석-가평-춘천 구간은 절반인 46회만 운행하는 안이다. 강원도는 대안1과 2 모두 B/C가 1.0을 넘어 운행횟수를 줄이는 2안보다는 주민 편의성이 높은 대안1을 선호하고 있다. 연장 여부는 다음달 발표

될 전망이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B 춘천 연장계획도 포함돼 있다. 관건은 비용이다. GTX-B 춘천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될 경우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된다. 만약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춘천시와 가평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

GTX에 투입되는 EMU-180은 1대당 170억원가량이다. 일일 92회를

운행할 경우 차량 12대, 2,040억원이 소요된다. 총 사업비는 5,000억~6,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춘천시와 가평군이 3,000억원씩 분담하는 셈이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15일 국토부를 방문해 GTX-B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할 방침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용산, 상봉을 거쳐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는 총 사업비 6조1,932억원으로 2024년 착공 예정이다. 마석-춘천 56km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공약이다. 최기영·정윤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02

“연간 50억원 투입 태백 365세이프타운, 국가 운영 절실”

태백시 자체 운영 재정부담 호소

태백상의 건의서 정부부처 전달

폐광지역 활성화 차원 국비 촉구

속보=국내최대안전체험 테마파크인 태백 365세이프타운의 국가 운영 필요성(본지 4월13일자 12면)에 대한 지역 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65세이프타운은 전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공적인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0월말 개관했다.

하지만 유지·관리에 한해에 40억~50억원이 투입돼 재정이 열악한 소도시인 태백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태백상공회의소는 최근 365세이프타운의 국가 운영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태백상의 건의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18%에 못 미치는 작은 자치단체(태백시)에서 매년 40억~50억원의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국가 규모의 안전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 압박으로 인해 더이상 버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운영하거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대체산업의 부재로 인구가 12만명에서 3만9000명대로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 6월말에는 지역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예정돼 있어 도시 붕괴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역철 태백상의 사무국장은 “ 지속적인 재정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365세이프타운의 운영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태백시는 소멸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안정적 도시 운영과 재정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운영 또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우열 woo96@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 21

의료업무 거부 사태 없어야

- '간호법' 대립으로 생명 피해보는 파국 막도록

국회 통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 시한이 5월 19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간 갈등이 집단행동으로 번지면서 의료현장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저지를 요구하며 모레(17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7일부터 공포를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역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협업과 공조가 필수인 의료현장에서 지역 간 갈등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주는 사태로 번져서는 안 됩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과 업무범위, 처우개선과 인력 양성 등을 담은 법안입니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에 간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그동안 발전된 상황을 반영해 간호분야를 더 구체화해 별도로 만든 법입니다.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19일로 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 내내 격화양상이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의견을 표명하는 선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

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료거부와 파업 등 집단행동으로 격화되는 것은 심각한 사안입니다. 의료현장의 업무공백으로 인한 타격은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등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더 클 것은 불보듯합니다. 특히 의사부족현상이 만성적인 공공의료현장에서 이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건강과 생명이 불모가 돼선 안 됩니다.

의료 보건 분야는 생명과 직결된 영역입니다. 간호법 시행 여부를 놓고 지역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각기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국민 의료와 보건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종사인력의 안정적인 양성과 향상이 가능하도록 우선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사회문제인데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병폐를 개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지역간 이해득실을 따지는데 골몰한다면 국민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 보건현장의 혼란을 가중하는 파장이 일지 않도록 조속히 조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의료보건환경을 구축하는 선택을 지향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5 15 ()
/ 21

‘납북 어부’ 국가폭력 반성 계기로

-재심에서 무죄, 분단체제 정략적 이용 경계해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어선 귀환 어업인들이 지나간 투쟁 끝에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5월12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에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으로 처벌된 32명에 대한 재심사건에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들을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했으며, 당시 제출된 증거와 진술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1971년 어선 납북으로 귀향 후 간첩 자백을 강요받아 범죄자로 살아온 고통과 상처를 조금이라도 씻어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12명은 세상을 떠나 생전에 명예회복의 순간을 맞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 응한 검찰 측은 “재심 신청인들이 북한에서 돌아온 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초한 법정 진술도 인정이 어렵고, 범행한 증거도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피해자들은 “수십년간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았다”며 호소했습니다.

1971년 8월 고성에서 오징어잡이 중 북으로 끌려가 귀환한 이들은 속초

항에 입항하자마자 감금된 채 북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조사하는 강압적인 과정에서 극도의 공포감 속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자진 월북을 염두에 둔 조사로 인해 납북이 아닌 월북 혐의를 자백하고 징역형을 치른 것은 물론 출소 이후에는 지나친 감시와 규제에 일상생활로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었습니다. 함구령을 강요받고 타지로 이동할 때조차 경찰서에 신고하고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사회적 냉대가 심했음은 물론입니다.

분단체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키 위해 법률을 통해 수사기관 등 국가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태가 집중적으로 발생된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접경지인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어선 납북을 경험한 어업인들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근래에는 탈북민을 간첩으로 조직했다가 발각된 사건이 일어나는 등 분단을 악용한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는 진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에 의해 조작된 허위사건을 재심을 통해 적극 바로잡아야 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수사 및 사법기관의 철저한 반성이 따라야 근절할 수 있습니다.

江原日報

2023 05 15 ()
/ 19

‘코로나19 빈틈’, 지금부터 촘촘히 메워 나가야

국내 코로나19 비상사태가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년4개월 만에 긴 터널을 벗어난 것이다. 경제적 고통과 일상의 불편함을 참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협력한 국민의 성숙함이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였다. 정부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한 데는 세계보건기구(WHO) 조치 등 국내외 여건이 영향을 미쳤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에 불과하다. 질병위험도가 크게 떨어졌고, 의료 대응 역량도 충분하다.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반가운 일이지만 방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루 확진자 수가 1만명대이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또한 활동 중이기 때문이다. 언제 새로운 감염병이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루 확진자 100만명에도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조치 해제와 동시에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나타났던 틈을 지금부터 촘촘하게 메워 가야 한다. 의사 부족은 심각하다. 비대면 진료 시대 흐름인데도 관련 입법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의료진과 병상 확

보가 미흡하면 새로운 감염병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은 겉돌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희생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주민을 상대로 대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대출로 연명해 나갔다. 자영업자 대출이 2022년 말 기준 1,02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후 금리 상승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부채가 있는 사

람 중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은 사람을 식별해 그들의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해 산출한다.

더 심각한 것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

의료진과 병상 확보 중장기적인 과제

관련 입법 마련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

자영업자 지원 정상적 영업활동 도와야

출을 받아 더 이상 추가 대출이 힘든 ‘다중채무자’의 상황이다. 다중채무자는 173만명이며 대출액은 72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을 대출했으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지난 1년 반 사이 이자 부담액은 1인당 1,000만원 정도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모럴 헤저드를 막는 보완장치를 전제로 선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연체 이자 탕감 등의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사정이 나은 자영업자와 취약 자영업자를 구분하고, 사업자별로 상환 능력을 점검해 추가 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5 15 () / 19

동해안 지진 22일간 15차례, 대응 역량 키워야 할 때

동해안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14일 오전 8시35분25초에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1km 해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났다고 밝혔다. 이날 지진의 진앙은 북위 37.86도, 동경 129.5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30km다. 올 4월23일부터 22일 동안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2~3 수준의 지진은 총 15차례다. 다행히 피해는 없지만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일반 지진’으로 분류하는 규모 2.0 이상만 집계한 결과다. 규모 3을 넘은 것은 3차례, 규모 2 수준이 12차례였다. 1978년 관측 이래 최다다. 그렇지 않아도 올 2월 튀르키예 대지진 참사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선명하다. 지진 발생 빈도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공포도 확산되고 있다.

강원도는 과거부터 큰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곳이다. 대형 지진이 언제 어디서 덮쳐 올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대비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건물 등의 내진 설계가 부족하고 대비 훈련도 거의 안 한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대응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진이 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즉시 몸을 피해야 할 ‘지진대피소’를 떠올리는 주민은 많지 않다. 지역 지진대피소가 있다는데 대부분 주민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지

진대피소를 들어 봤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도내 건축물의 내진율은 전국 건축물 내진율 15.3%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축물의 내진 보완 작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요 시설부터 내진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교량, 터널, 댐, 발전소, 고층 아파트, 노후 건물 등 각종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최근 잇단 동해안 지진은 지자체가 지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훈련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강원도는 사실상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지진은 대형 재난이다. 도민 안전은 물론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대응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한 인재(人災)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은 빈틈없는 대비밖에 없다.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재앙을 막을 순 없어도 철저하게 미리 준비한다면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지진 징후 모니터링 강화, 매뉴얼 점검, 실전 같은 대피 훈련 상시화 등 재난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할 때다.